

현행 大學入試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案

黃 禎 奎

(서울大 教育學科)

I

어느 조직체이건 그 조직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생성과 창조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중의 하나가 그 조직체에 가장 필요하며 適合한 人的 資源을 선발, 훈련, 배치하는 일이다. 정부조직, 기업체, 군대, 병원 등이 모두 그렇거니와 대학 조직체도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被教育者의 선발을 위한 入試制度가 大學內의 교육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世論과 社會의 銳角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大學入試가 개인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가정, 사회, 그리고 대학 자체의 存立維持에 주는 意義와 比重이 크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大學入試가 過熱해지면서 그것을 위한 개인적 노력, 재화, 시간의 투입도 막대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財貨 및 노력의 투입도 막대하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大學入試에 대한 관심이 過熱되어 왔고, 또한 계속 그러리라 하는 데 대한 形而上學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그 形而下學의 이유는 대학 입시에서 합격하는 것이 한 個人의 社會上向移動을 위한 가장 보장받은 길, 최선의 길,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으로 評價받고 있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대학 중에서도 世評이 좋은 대학이나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돈받고, 잘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地位上昇에 대한 歪曲된 意識構造에 있다. 그러기에 대학을 敎育받고, 人格을 도야하며, 自我實現을 위한 기회나 場으로서가 아니라 階層上向移動에 필요한 約束어음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는 의식이 은연중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思考를 지배한다.

大學이란 본래 개인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함으로써 한 국가, 社會가 필요로 하는 인간성을 지닌 개인, 고도로 개발된 지성인을 敎育하기 위해 탄생된 敎育기관이다. 이같은 대학 본래의 정신과 전통은 현재와 같이 大學敎育의 機會가 확대되고 普遍化되어 가며, 따라서 대학생의 人口爆發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그러면서도 지성인, 전문인, 교양인의 敎育이라는 압력과 거기에서 파생하는 갈등을 겪으면서 많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必要不可缺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요구는 대학敎育의 양적 팽창에 관계 없이, 또 대학에 밀어 닦치는 압력들 사이의 상충과 갈등에 관계 없이 대학이 최후까지 지켜야 할 보루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이란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입

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이르고 대학에서의 修學能力과 자질이 있다고 판정된 자만이 입학이 허가되는 입학에서의 標準選拔의 條件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는 교육기관이다. 이같은 대학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大學入試制度는 그런대로 그 合理性과 適合性を 인정할 수 있다.

II

現行 大學入試制度의 骨格은 첫째, 대학 지원자의 대학에서의 修學能力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學力考查, 둘째 高等學校 敎育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느냐를 고등학교측에서 평가하는 高校 內申制度, 셋째 體力檢査의 성적이라는 세 가지 母數値에 의해 각 대학이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고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이같은 대학 입시제도의 기본 골격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視角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지적된 문제점 중 중요한 것만을 요약해 보자. 첫째 대학 입학생 선발에서 大學의 自律性, 獨自性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 둘째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過重하다는 것, 셋째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출제 부담과 아울러 입시관리 부담이 과중하여 거의 極限點에 이르고 있다는 것, 넷째 입학생의 대학 지원절차에서 '눈치작전'이 격심하다는 것, 다섯째 學力考查의 출제방식이 선택형 문항 위주이기 때문에 입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表現能力 등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 여섯째 입학 지원자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기회균등을 함께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문제점 사이에 전혀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는 理想的인 入試制度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점을 최대한 收斂하는 방향에서 그 改善方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시도는 몇 가지 기본적인 前提를 가정해야 한다. 첫째 大學의 自律性을 최대한 신장하는 데 주력하며, 둘째 高等學校 敎育의 正常化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행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大學入學 학력고사의 타당성을 提高하는 방향에서, 넷째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을 수렴하도록 하며, 다섯째 大學入試制度의 安定成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의 自律性과 獨自性을 신장시키는 어떤 정책의 채택이 高校敎育의 正常化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학생의 입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입시제도나 사정 방법의 妥當性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적절한 調和와 緊張이 함께 共存하면서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方案을 고안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課題이다.

III

현행 대학 입시제도의 두 개의 갖대인 學力考查와 高校 內申成績(학력장 포함하여) 이외에 大學別로 실시하는 '論述考查'의 실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대학 입학생 선발에 관련된 利害가 서로 상충,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3개 準據集團(reference group)인 경우, 高校, 大學 사이에 존재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緊張된 調和'를 적절히 유지하는 길이 될 수 있다.

大學入試에다 論述考查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출제방법이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같은 문항형식이 갖는 內在的 特徵이 선택의 능력, 기억과 확인의 능력, 단편적 지식의 평가에 그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같은 결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表現力, 組織力, 構成力, 論理的 思考力, 批判力, 綜合力 등 高次的 精神能力을 측정, 평가하는 기능이 대학 입학고사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와 當爲性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 입시제도의 선발방식이 장차 학생의 敎育을 담당해야 할 大學側의 선발기능, 선택의 기회를 완전히 排除하고 있는 劃一的 査定方法이기 때문에 대학에게 입학생의 査定權을 회복시키며 自律性을 신장한다는 의미에서 입시제도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여러 가지 함축성을 띠고 있다.

이 論述考查의 실시는 국가의 視角에서 보면 국가에서 부과하는 學力考查, 高校에서 평가하는 內申成績, 그리고 體力章의 세 개의 숫발에 의해 대학 입학 적격자를 査定하도록 했던 그동안의 입시제도에 論述考查가 추가됨으로 해서 입시제도 根幹에 새로운 변혁을 신중히 수렴해야 할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또 大學은 각 대학 나름으로 독자적이며 自律的인 방법에 의해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選拔權, 査定權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권리의 '原狀回復'이기는 하지만, 이 회복된 권리의 합리적이며 正義로운 실현이라는 命題를 떠 맡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挑戰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高校교사 및 학생은 論述考查에 대처한 가장 합리적이며 유효 적절한 교육과 학습을 함으로써 고차적 정신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새로운 負擔을 안게 된 것이다.

大學別 論述考查는 教科目에 의거한 출제를 지양하고, 고차적 사고에 관련된 학업능력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특징은 바로 이 점에 있으며, 그 成敗도 바로 이 원칙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條件은 이 고사가 1980학년도까지 실시되었던 本考查制度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특정 教科目에 의거한 論文型 문항이 출제된다면 다시 '論述考查'를 위한 課外授業이 음성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현행 입시제도의 기본 정신을 위협하는 병리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IV

大學入學 學力考查에서 얻은 科目別 성적을 大學이 필요에 따라 加重値를 辨別的으로 적용하여 입학 전형 점수의 기초로 삼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제안한다.

辨別的 加重値를 적용하는 것은 大學 신입생 선발에서 대학의 自律性을 제고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 방법의 적용은 학업적성에 기초한 선발, 눈치작전의 완화, 總點이라는 單一制度에 의한 大學地位의 序列化

등에 制動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系列 및 學科는 學問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能力에 辨別的 差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科目別 성적은 이같은 辨別에 기여하는 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系列別 또는 學科別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系列이나 學科의 특성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學業適性도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教育的 合理性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성은 곧 大學의 自律性에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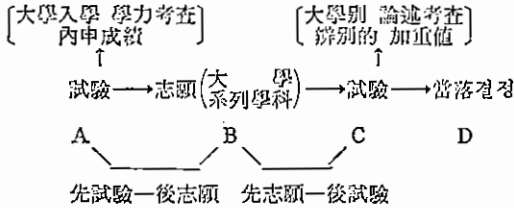
또한 系列別 또는 學科別로 요구하는 적성에 따른 志願傾向을 유도함으로써, 현행 입시제도가 갖는 학력고사 總點에 기초한 劃一的 적용과 選拔 때문에 파생하는 지원 학과 또는 계열 선택에서의 눈치작전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總點得點 위주의 사고에서 科目別 특점 위주의 사고로 전환시킴으로써 교묘에서의 적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줄 可能性을 열어 준다. 이 제도는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 기호, 흥미, 적성, 능력에 따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現行 입시제도가 나타내고 있는 입시 총점에 기준한 大學 또는 學科의 공공연한 序列化 경향을 크게 완화하거나 制動作用을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總點 위주의 지원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전국의 대학과 學科를 單一尺度 위에 序列化시켜 버렸다. 이에 반해 辨別的 加重値를 적용할 경우 각 대학, 계열, 학과별로 加重値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總點이라는 單次元尺度에 의한 序列化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V

현행 입시제도에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비난의 하나는 '先試驗—結果通知—後志願'이라는 지원 절차에서 파생하는 外生的 요인에 의한 부작용(눈치작전, 도박) 때문에 제도 자체의 존립 여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안한 大學別 論述考查와 辨別的 加重値 적용이 함께 실시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先試驗—後志願’ 방식과 ‘先志願—後試驗’ 방식이 동시에 복합된 절차가 되어 현행 제도의 ‘先試驗—後志願’의 획일적 지원방식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정책의 채택의 복합방식이 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선발과정의 前半部에 해당하는 A—B는 현행 제도 그대로이며 이것은 先試驗—後志願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고, B—C를 연결하는 後半部는 先志願—後試驗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複合方式은 先試驗—後志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지원과정에서의 混亂(흔히 지칭되는 것으로 배짱지원, 눈치지원, 도박지원 등)을 감소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先志願—後試驗의 방식에서 예상할 수 있는 自己能力的 過信에 의한 무모한 지원 때문에 파생할 수 있는 불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점수에서 高得點者는 豫想得點과 實際得點 사이의 격차가 극히 적으나 실제 得點이 낮아질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같은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世論에서 지적하듯이 先志願하고 後試驗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만약 이 제도만을 택하였을 경우 志願者의 개인적 불행(不合格率)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어떠한 종류의 선발에서건 약간의 눈치, 배짱, 도박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유독 대학입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이 인식하는 우리의 思考나 논리에도 문제가 있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VI

현행 大學入學 學力考查에도 여러 가지 문제

가 제기한다. 학력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고사가 四肢選擇型 일변도의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차적 정신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과 科目數의 過多('84학년도에는 15개 교과), 그리고 하루 동안에 실시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고사의 妥當性, 信賴度의 약화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력고사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科目當 문항수를 증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학력고사의 과목당 문항수가 8~2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같이 적은 수의 문항으로 敎科目別 학업성취도를 타당하고 포괄성 있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항수의 증가는 연쇄적으로 考查時間의 증가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考查日期를 1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2일 정도로 증가시켜야 함을 示唆한다.

이와 아울러 현행 학력고사가 時間制限이 심한 評價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혹은 적절히 주는 力量檢査(power test)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으로 하여금 각자의 학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대한 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力量檢査이다. 그러나 大學入試와 같은 大量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사에서 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는 조건은 시행상의 난점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문항당 평균 1분이라는 시간으로는 부득이 암기 위주, 단편적 지식 위주, 하등 정신기능 위주의 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를 빚는 것은 출제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고사의 외적 조건의 문제이다.

좋은 문항, 고차적 정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위에 든 問項當 時間의 制約도 탈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正答型' 문항이 아니라 '最善答型' 문항도 출제할 수 있는 길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 正答에 대한 시비, 法院에의 飛火, 그리고 무우즙 사건과 같은 교육외적 惡夢 때문에 학력고사가 모두 정답이 뚜렷한 문항, 다른 말로 바꾸면 사고하거나 문제를 추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禁忌처럼 되어 온 건

통을 脫皮할 필요가 있다. 고차적 정신능력의 평가는 '最善答型' 혹은 이와 脈을 같이하는 문항 유형에서나 가능하며, 이것은 곧 正答에 대한 反論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여론의 합의가 없는 한, 학력고사는 언제나 단편적 지식의 암기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곧 評價하려는 內容과 目標의 성격에 따라 問項形式의 多樣化를 허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행 학력고사는 四肢選多型에다 正答型이라는 定型만이 획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敎科目的 성격, 측정하려는 내용과 목표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四肢選多型 이외에 필요에 따라 眞僞型, 配合型, 多肢選多型(五肢, 六肢...十肢 등)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사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問題事態問項(problem situation item)의 적용 가능성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실생활이나 어떤 해결되어야 할 문제사태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一聯의 다양한 교과목의 다양한 목표를, 다양한 문항형식으로 평가하는 문제사태 문항은 고차적 정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學力考查의 敎科目數가 많아서 受験生의 入試準備 부담이 過重하고 따라서 출제 및 入試管理의 업무도 과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丙申制度라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力學關係 속에서 고려하면 학력고사의 교과목수를 상당수 축소 조정하는 방향에서 고려해 보는 것도 합리적 방향이라고 본다.

VII

현행 대학 입시제도의 전형 기준의 하나로서 丙申制度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한 社會的 여건(과열 과외수업의 불식) 및 敎育的 여건(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때문이었다. 고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우수하게 정상적으로 성취했는가를 사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고교 3개년 동안의 학업성취 전반에 걸친 評價를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뜻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이다.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개도로 선회했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丙申制度의 도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丙申制度 자체에 대한 贊反, 호응과 비판은 엇갈려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학생의 고교 교육과정 성취도를 대학입학 전당기준의 일부분으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社會理念과 社會正義,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에까지 관련되는 문제로 부각될 蓋然性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입시제도 속에 丙申制度를 적용하는 경우, 그 理想的인 반영비율, 즉 반영의 무게를 어느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제도의 適切性에 직결된다. 현재 대개 입시 총점의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比重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丙申成績에 각 학년의 성취결과를 모두 一律적으로 균등하게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고교의 수학 결과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입학시험의 평가 목적에 더욱 접근되어 가기 마련이며, 그런 뜻에서 학년이 상승함에 비례하여 漸進的 比重(예컨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등으로)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같은 漸進的 差等比重을 적용한다면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에서 학업성적이 부진했던 학생이 丙申成績 등급을 올리기 위해 고교를 자퇴하고 檢定考試에 응시하는 跋行的 현상을 막는 데에도 긍정적 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VIII

대학 入試制度에 最善의 單一한 案이나 정책이 존재할 것이라는 幻想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차피 '보다 나은 案'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교육 안에서 혹은 교육 밖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제도에 자꾸만 짐을 지우려는 생각은 타기되어야 한다. 입시제도라는 母數值 하나를 가지고 대학문제, 고교문제, 사회문제, 심지어 정치문제까지 해결하려는 데에서 모든 歪曲된 병리 현상이 파생할 수 있음에, 또 입시제도가 몸살을 앓고 영원히 潛水해 버릴 수도 있음에 注目해 주기 바란다. *